

유류세 20% 인하·소비쿠폰 지급...민생안정 잡는다

유류세 역대 최대 인하율...내달 12일부터 휘발유 l 당 164원 ↓ 내달 초부터 외식 등 9개 소비쿠폰 사용 재개...2282억원 상당

당장 다음달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

유통·제조·서비스 전 산업부문을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소비주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11월1일-15일)도 2주 동안 병행하면서 경기 부흥과 방역 사이에서 시립대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물가 안정 대책은 '유류세 20% 인하안'이다.

15%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인하율을 내걸었다.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내린 가장 최근 시기는 유류세 15%를 인하한 지난 2018년 11월부터 6

개월 동안과 인하 폭을 7%로 축소했던 2019년 5-8월이었다.

유류세 20% 인하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추진된다. 단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인하 조치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l 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6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 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로 기대되는 물가 인하 효과는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 0.33%포인트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

■ 단계적 일상회복 소비쿠폰 9종 주요 내용

부문	내용	예산(억원)
농수산물	농수산물 구매 때 20%(최대1만원) 할인	739
외식	외식업소 4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 때 1만원 환급	180
공연	1인당 8000원 할인 제공	139
숙박	온라인 예약 때 2만~3만원 할인	565
체육	실내체육시설 월 누적 이용금액 8만원 이상 때 3만원 환급	330
영화	1인당 6000원 할인 제공	123
여행	공모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선결제 40% 할인	90
전시	미술관 1000~5000원 할인/박물관 40% 할인(최대 3000원)	86
프로스포츠	축구·야구·농구·배구 관람 때 50% 할인(최대 7000원)	30

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가스요금도 포함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는 파격적인 원칙도 내놓았다.

이는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에 따른 결정으로,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

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11월부터 국내 방역 시계는 '일상 회복'에 맞춰지면서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진다.

당장 27일부터는 집합금지·제한업종 80만명

에 대한 2조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지급이 실행된다.

또한 방역지침 안에서 11월 초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다시 시작한다. 국내 최대 소비진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병행하면서 민간 소비력을 높이는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소비쿠폰 지급 종류는 농수산물과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여행, 전시, 프로 스포츠 등 9종이다. <표 참조>

농수산물 부문 739억원, 숙박 565억원 등 예산 규모가 2282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0월28일-11월11일)과 연계해 축산물을 최대 25% 할인 판매하고 김장철 주요 채소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할인 행사를 확대한다.

김장철 농축산물과 수산물 1인당 할인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하면 1만원 환급해주는 기존 행사도 재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손실보상 1곳당 평균 300만원...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30일까지 '홀짝제' 접수 나흘간 매일 4차례 당일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나흘 동안 '홀짝제'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다. 별도 제출 서류는 없다.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 가능하다.

27일(수)과 29일(금)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28일(목)과 30일(토)에는 짝수가 신청한다.

31일(일) 이후에는 번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중기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다.

전체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2만7만곳이고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3000곳이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이고 지급액은 1조8000억원으로 73%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아·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1880원), 2020년(1932원) 등 최근 4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첫 사흘 간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 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파 집에 맞게 꾸며요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까사 알렉시스'에서 고객 주문대로 조립·분리할 수 있는 '모듈러 소파'를 선보이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달 들어 이 점포의 프리미엄 소파 등 가구 매출은 전년보다 31.3% 늘었다. <롯데쇼핑 제공>

10월 한파에 양상추 값 2배 '경충'

패스트푸드업계 수급난

이른 한파로 인해 대형 식품업체가 채소 수급난을 겪고 있다.

가을 냉해로 양상추 수급이 어려워지자 맥도날드와 서브웨이는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체 상품으로 보상에 나섰다.

26일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에 따르

면 지난 25일 기준 광주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양상추 1kg 도매가는 3953원으로, 이달 초(1일) 1873원보다 111.1%(2080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서부도매시장 양상추 도매가도 2015원에서 3556원으로, 76.5%(1541원) 급등했다. 올해 평균 양상추 도매가 역시 최근 4년 내 가장 높다. 올해 평균 각화도매시장 kg당 도매가는 2509원으로, 지난 2018년(1682원), 2019년

(1880원), 2020년(1932원) 등 최근 4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가격 급등은 갑작스러운 가을 한파로 양상추 작황이 나빠지면서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달 17일에는 광주·전남에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10월 중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양상추 수급이 어려워지자 맥도날드와 서브웨이 등 패스트푸드 업체는 양상추를 사용하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어렵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지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해영업본부 : 서해시 금곡동 기신단지122호 14 대우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